

류현진 다웠다

24일만의 복귀 메츠전 6이닝 9탈삼진 2실점...시즌 4승

류현진이 24일 만에 선발 등판한 메이저 리그 원정경기에서 화려한 복귀 신고를 했다.

류현진은 이날 미국 뉴욕 시티필드에서 열린 뉴욕 메츠와의 메이저리그 원정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6이닝 동안 삼진 9개를 잡고 9안타(홈런 1) 2실점으로 막았다.

이날 6이닝 동안 던진 89개의 공 중 스트라이크가 60개였다. 6회에서 커티스 그랜더에게 좌전안타를, 에릭 캄벨에게 좌월 2점 홈런을 허용했으나 5회까지는 무실점을 기록했다.

지난달 28일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경기 중 왼쪽 어깨에 통증을 느낀 후 15일짜리 부상자 명단(DL)에 올라 공백기를 가진 지 24일 만이다.

지난해부터 올 시즌까지 이어진 류현진의 원정 경기 무실점 행진을 33% 이닝에서 중단했다. 실점한 구위는 공교롭게도 그의 주무기인 체인지업이었다. 이날 허용한 안타 9개 중 3개는 체인지업, 2개는 커브, 2개는 슬라이더, 2개는 직구를 던졌다가 맞았다.

직구를 가장 많이 던졌지만, 상대적으로 직구 피안타 비율은 높지 않았다. 피안타 대상도 상대 투수 제이콥 디그롭과 구위가 다소 떨어진 6회말에 월터 플로레스에게 내준 것이었다.

오리더 메이저리그 전체 2위에 오를 정도로 위력적인 구종으로 평가받는 체인지업의 피안타율이 가장 높았고, 올 시즌 두 번째 홈런을 헌납한 구종도 체인지업이었다.

이날 류현진의 공은 힘이 넘쳤다. 직구

는 대부분 시속 90마일(약 145km) 이상에서 형성됐고, 최고 구속은 시속 94마일(약 151km)을 찍었다.

직구 시속이 올라가자 유인구 효과도 배가됐다. 주심의 넓은 스트라이크존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류현진은 폭포수 커브, 현란한 체인지업, 교묘한 슬라이더로 올 시즌 가장 많은 삼진 9개를 뽑아냈다.

직구와 똑같은 투구자세에서 느리게 날아가 타이밍을 빼앗는 서클체인지업은 류현진의 주무기로 꼽히지만 올 시즌에는 잘 통하지 않고 있다.

올 시즌을 돌아보면 류현진이 고전했던 경기들은 모두 직구의 구속 저하에서 비롯됐다. 직구 구속이 떨어지면 체인지업과 직구 구속 차이가 작아지기 때문에 타자들이 양쪽을 모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류현진의 구속이 전체 경기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직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류현진이 제구어 좀 더 신경을 써서 다채로운 구종 조합을 시도하는 것이 승리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류현진은 경기를 마친 뒤 “오늘 등판하기 전에 승패보다는 몸이 어찌지를 점검하는 게 관건이었다”며 “일단 통증없이 던진 데 대해 만족한다”고 말했다.

류현진은 자신의 제구력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는 “볼도 많이 없었고, 실투도 그리 많지는 않았다. 20여일만의 등판치고는 상당히 만족스런 제구력이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시즌 목표에 대해서는 “10승을 목표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2일 미국 뉴욕 시티필드에서 열린 뉴욕 메츠와의 메이저리그 원정경기에서 선발 등판한 류현진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에게 에이스란...자랑스러운 이름”



양현종, LG전 127개 시즌 최다 투구

KIA 에이스 양현종은 2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127개의 공을 던졌다.

올 시즌 최다 투구수였지만 양현종은 투수코치가 올라오는 순간까지도 마운드를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더 마운드를 지키고 싶다는 기색이 역력했던 양현종.

그러나 양현종은 1-2로 뒤진 7회 1사 2루에서 감판됐다. 구원 등판한 한승혁이 정의운에게 투런포를 맞으면서 이날 양현종의 기록은 6.1이닝 6피안타 5사사구 6탈삼진 3실점이 됐다. 팀은 0-4로 영봉패를 당했다.

양현종은 “초반 밸런스가 좋지 않았다.

나중에 5-6회가 되면서 밸런스가 좋아졌다. 다음 등판을 생각해서라도 밸런스 감을 잡아두는 게 좋기도 했고 승리에 대한 욕심이 났다”고 7회 상황을 설명했다.

양현종의 고집에는 에이스로서의 승리에 대한 욕심과 이닝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다. 양현종은 “평균자책점 생각을 했더라면 6회가 끝나고 그만 던졌을 것이다. 그런데 올 시즌 시작 전부터 밝힌 목표가 이닝이다. 팀을 위해 많은 이닝을 던지고 싶어서 7회 다시 등판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바람과 달리 결과는 좋지 못했지만 어려운 과정을 통해 ‘진짜 에이스’로 성장해가고 있다는 게 양현종의 평가다.

선동열 감독도 “어제 양현종의 기분은

어찌 모르겠는가, 우리 때야 200개를 던지던 말던 상관없었지만 그게 아니다. 올 시즌 가장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도 최대한 자기 역할을 해냈다”고 평가했다.

양현종은 “특정지원이 없다는 얘기들도 하지만 그런 것 신경 안 쓰고 내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다. 내 이닝을 던지면 타자들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며 “내가 나고 자란 곳에서 타이거즈 에이스라는 이름을 듣는 게 영광이고, 더 잘하고 싶어진다. 에이스는 내게 책임감과 자부심이다.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승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말·말·말

김병현 1군 엔트리 합류에

선 감독 “편할때 내보내는 걸로”

▲“중간에 편할 때 내보내는 걸로” ‘핵심수입’ 김병현이 고향팀 유니폼을 입고 마침내 마운드에 오른다. 김병현이 23일 1군 엔트리에 합류한다.

이에 따라 울산문수구장에서 열리는 롯데와의 원정경기가 KIA 김병현의 정식 데뷔 무대가 될 전망이다. 넥센에서 뛰었던 김병현은 지난달 10일 좌완 김영광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고향에 돌아온 뒤 2군에서 몸을 만들어 왔다.

선동열 감독은 “내일부터 김병현이 1군에 합류한다. 중간투수로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편한 상황에서 등판을 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친하다니까요.” 신인 강한울의 새 스파이크가 덕아웃에서 화제가 됐다. 타이거즈와 잘 어울리는 빨간 스파이크. 외국인 선수 필의 선물이었다. 필은 스스럼없이 말도 걸고 장난도 치는 루키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

한국에는 빨간색 상품의 재고가 없어서 직접 미국으로 주문을 해서 받은 물건이었다. 강한울은 “우리 정말 친하다니까요”라는 말과 함께 스파이크 끈을 고쳐매며 선물 자랑을 했다.

필은 “이종환과 백용환에게도 선물을 했다. 김주형 등 다른 선수들을 위해서도 선물을 주문했다”고 사람 좋은 웃음을 지었다. /김여울기자 wool@



아무나 못입는 단복...월드컵 스타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과 코치진, 선수들이 22일 오전 경기도 파주 NFC에서 단복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삼성에버랜드 패션부문의 남성복 브랜드 갤럭시는 이번 브라질 월드컵 대표팀의 단복을 공식 협찬, 선수들을 위해 ‘프라이드 11(Pride 11)’을 제작했다. /연합뉴스